

코로나19 속 귀한 전시회 '여수국제미술제' 내일 개막

내달 5일까지 '해제解題 금기어' 주제 90명 작가 참여 300여 작품 전시
입장인원 50명 미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 운영

여수시는 코로나 블루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빠진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여수 대표 전시회 2020 여수국제미술제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박람회장 전시홀(D1~D4)과 엑스포아트갤러리(9월 8일부터 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여수국제미술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막식 및 만찬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전시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입장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

하고 전시 관람 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다. 추후 지역감염 확산세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영상 전시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해제解題 금기어'다. 원초적 금기부터 시대성과 지역성을 함의한 금기까지,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작가들을 통해 관람객들은 희열과 동시에 기존의 틀을 깨고 인식이 전환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시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은 국내

외 작가 90명의 영상미디어 10점, 회화·사진 270점, 설치미술 20점 등 현대미술작품 300점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에 120명의 작가가 150점의 작품을 출품한 것과 달리, 올해는 90명의 작가가 300점의 작품을 출품해 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미술작품들을 준비하였으니,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최준열 기자



▲ 여수 대표 전시회 2020 여수국제미술제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박람회장 전시홀(D1~D4)과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오른쪽 뱅크시의 작품 '발레리나')

문체부 주한외국인 위해 문화유산 탐방 영상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현장 중심의 탐방 프로그램을 '온라인 체험', '소규모 탐방', '교육'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해문홍 유튜브 채널(youtube.com/GetawayToKorea) 등을 통해 공개한다. 먼저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산모시 짜기'를 체험하기 위해 서편을 처음으로 탐방한다. 한산모시 무형문화재 방언옥 선생님과 만남, 모시 짜기 체험 등을 흥미롭게 촬영한 영상은 4일 만나볼 수 있다. 한산모시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 국제외교무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 외교 활용되며 뉴욕 패션위크 때 소개되는 등 국제적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한산모시 짜기 체험 후에는 창덕궁·동의보감, 안성 남사당재, 마곡사·공주박물관 등을 이어서 탐방한다. '소그룹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강화 고인돌 ▲수원 화성 ▲광화문 및 훈민정음 ▲영주 소수서원 등을 주제로 한 총 4회의 탐방 영상을 공개한다. /뉴시스

현구문학상에 소설가 송하훈 씨 선정

강진 첫 수상자 배출... 내달 16일 시상

1930년대 시 문학과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현구 시인(1903~1950)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초 강진군이 제정한 현구문학상 첫 수상자로 소설가 송하훈 씨(66)가 선정됐다.



으로 결정했다"면서 "송하훈의 '치원 황상'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강진의 지역성과 향토성을 살려내 문학적 가치가 높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강진군은 현구문학상 운영에 따른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 이에 준거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정관 및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현구문학상' 수상 후보는 반드시 강진군에 주소를 둔 현지 거주 문학인으로서,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작집을 출판했거나 지역문학 발전에 공이 많은 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옥애·동화작가는 2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 후보에 오른 송하훈 씨의 장편동화 '치원 황상'을 제1회 현구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다산 정약용의 1호 제자인 치원 황상의 일대기를 어린이의 관점에서 그려낸 '치원 황상'은 강진의 중심인물 다산 선생의 제자를 소재로 다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신달자(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노창수 시인(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이 참여했다. 두 심사위원은 "마지막까지 두 작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장편동화 '치원 황상'을 수상작

으로 결정했다"면서 "송하훈의 '치원 황상'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강진의 지역성과 향토성을 살려내 문학적 가치가 높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강진군은 현구문학상 운영에 따른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 이에 준거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정관 및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현구문학상' 수상 후보는 반드시 강진군에 주소를 둔 현지 거주 문학인으로서,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작집을 출판했거나 지역문학 발전에 공이 많은 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현구 김현구 시인은 1903년 11월 30일 강진에서 태어나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변영로, 신석정 등과 1930년대 활동했던 시문학과 동인이다. 1930년 '시문학' 2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벌인 현구는 '문예월간' (1931), '문학' (1934) 필진으로 참여해 한국시문학사를 풍요롭게 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생애 85편의 시 작품을 남긴 채 1950년 6·25 참화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문화상품점 입점상품 공모

29일까지 접수... 다양한 우수 문화상품 발굴 보급 기대

고흥군은 우수 문화상품의 발굴과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분청문화박물관 문화상품점 입점상품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고흥의 역사와 문화, 예술, 생활, 설화, 운대 분청사기 등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모를 받으며, 서류 및 심실 심사를 통해 상품성, 전통성, 심미성, 수익성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주요 상품군은 문구, 생활용품, 패션용품, 분청사기(주병, 다기, 접시 등)로 선정된 문화상품은 분청문화박물관 문화상품점에 입점하게 된다. 분청문화박물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전시·판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안서 및 샘플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또는 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청문화박물관은 문화상품 공모뿐만 아니라 분청사기 공모전, 도예 강좌, 박물관대학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송승철 기자

분청문화박물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전시·판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안서 및 샘플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또는 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청문화박물관은 문화상품 공모뿐만 아니라 분청사기 공모전, 도예 강좌, 박물관대학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송승철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창작 시 공모전' 연다

이달 말까지 3개 부문 자유주제 1인당 1편 응모

광양중앙도서관은 독서의 달(2020. 9. 1~30)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창작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세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일반 시민(현직 시인 제외)이면 누구나 자유주제로 1인당 1편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한시(漢詩) 부문은 제외한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총 9명(최우

수상 3, 우수상 3, 장려상 3)에게 광양시장상을 수여하며, 공모전 결과는 10월 말 도서관 홈페이지와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수상한 작품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시화로 제작해 12월 말까지 광양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루에 전시할 예정이며, 추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창작 시 공모전'은 이메일

(lesley1994@korea.kr) 또는 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우편의 경우 9월 29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광양중앙도서관(061-797-3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뮤지컬 '모차르트' 국내 첫 유료 온라인 상영

뮤지컬 '모차르트'가 국내 뮤지컬 업계 최초로 유료 온라인 상영을 시작한다. 2일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오후 2시부터 예스24 티켓을 통해 10주년 기념공연의 실황 영상 48시간 VOD관람권, MD 상품 등을 포함한 결합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4일 오후 2시 네이버 V LIVE와 인터파크 티켓에서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상영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공연이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대두된 '유료 온라인 상영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